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2 호

2022년 11월 9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2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11/29)
2.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런칭 및 신청 안내
3. 2022 년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 공유
4. ERM + UNGC 조찬간담회 결과 공유
5. 2022 년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 공유 (10/20, 11/1)

■ 본부 소식

1. COP 27: 기후변화에 대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KT

■ SDGs 소식

[SDGs 솔루션] 저탄소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 폐기물(Dalmia)

■ UNGC & 회원사 뉴스

1. CoREi,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발간
2. KoDATA,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박차”
3. "사회적 책임 준수"...수협은행,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4. 유한양행,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사회적 책임 실천
5. 에코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얼리어답터 참여회원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22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11/2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11월 29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열리는 『2022 Korea Leaders Summit』은 급변하는 시대
공정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안내

- UNGC 회원사 참여: 무료 (회원사당 최대 4인)
- 비회원사 기업 및 개인 참여: 기업 50만원 (기업당 최대 2인), 개인 20만원
- 사전 신청: 11월 21일 (월) 18:00까지

시간	프로그램(안)	
10:00 - 10:05	5' 개회사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10:05 - 10:10	5' 축하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	
10:10 - 10:25	15' 기조연설: Business for Peace와 기업의 SDG 기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25 - 10:35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기업 세레머니	
10:35 - 10:40	5'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런칭 세레머니	
10:40 - 10:50	10' 특별 메시지: 평화를 위한 연대 타티야나 사하루크 유엔글로벌콤팩트 우크라이나 협회 사무총장	
10:50 - 11:00	10'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이화첼리&이화다움	
11:00 - 12:10	70' 특별세션: 글로벌 ESG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대표 [좌장] 세버린 니어부트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수석정책고문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 & 성균관대학교 교수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12:10 - 13:20	70' 휴식 및 오찬	
13:20 - 13:30	10' 특별강연① 포용적인 직장문화 조성(Fostering Inclusive Workplaces)	
13:30 - 14:30	60' Talk Concert: 기업 내 DEI 증진 방안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좌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4:30 - 14:40	10' 휴식	
14:40 - 15:50	70' [국회의실A] 주제별 세션 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CoREI]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좌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중회의실A] 네트워킹: 여성 리더로 가는 길 전양숙 유한킴벌리 이사 *기업별 10년차 이상 팀장급 여성리더 참석
15:50 - 16:05	15' 특별강연② 탄소중립을 향한 공정한 전환 메리 워릭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차장	
16:05 - 17:15	70' 주제별 세션 ② 디지털시대의 인권 경영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캐서린 블록 베일버그 덴마크 인권연구소(DIHR) 기업과 인권국 수석연구원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15 - 17:20	5' The UN Global Compact Uniting Business for a Better World	
17:20 - 17:25	5' 럭키 드로우 이벤트	
17:25 - 17:30	5' 폐회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요 인사 소개



반기문
제2대 유엔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의회 명예회장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 회장



산다 오잠보 Sar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



유현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메리 워릭 Mary Warlick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차장,
前 주세인트비아 미국대사



박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후위원회(ISSC) 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세버린 니어푸르트 Severine Neervoort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수석정책고문



김대홍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한국 대표



이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정어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인소중립연구 본부장



김국염
대한상금회 이사 반스 총합센터장



타티아나 사하루크
유엔글로벌콤팩트 우크라이나협회
사무총장



전양숙
유한칼베리 이사



홍상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팀 과장



노태양
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캐서린 블로크 베임버그 Cathrine Bloch Velberg
덴마크 인권연구소(DHR)
기업과 인권국 수석연구원



김태한
한국사회적투자신포럼(KoSIF),
CDP 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참가 신청

서밋 참가를 원하실 경우 꼭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구글 링크 연결이 안될 경우 [참가신청서\(수기\)](#)를 작성하시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런칭 및 신청 안내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BHR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들이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한 약속 이행 과정을 가속화하는 6 개월 간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는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수립 및 실행 가능한 계획 개발을 통해 참여사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사는 일련의 워크숍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인권 실사 과정을 수립하고, 고유한 주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처음 런칭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는 한국협회를 포함한 30 개국 이상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되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및 노동권 존중을 향한 비즈니스 공동의 영향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12 월 16 일에 마감되며, UNGC 회원사는 본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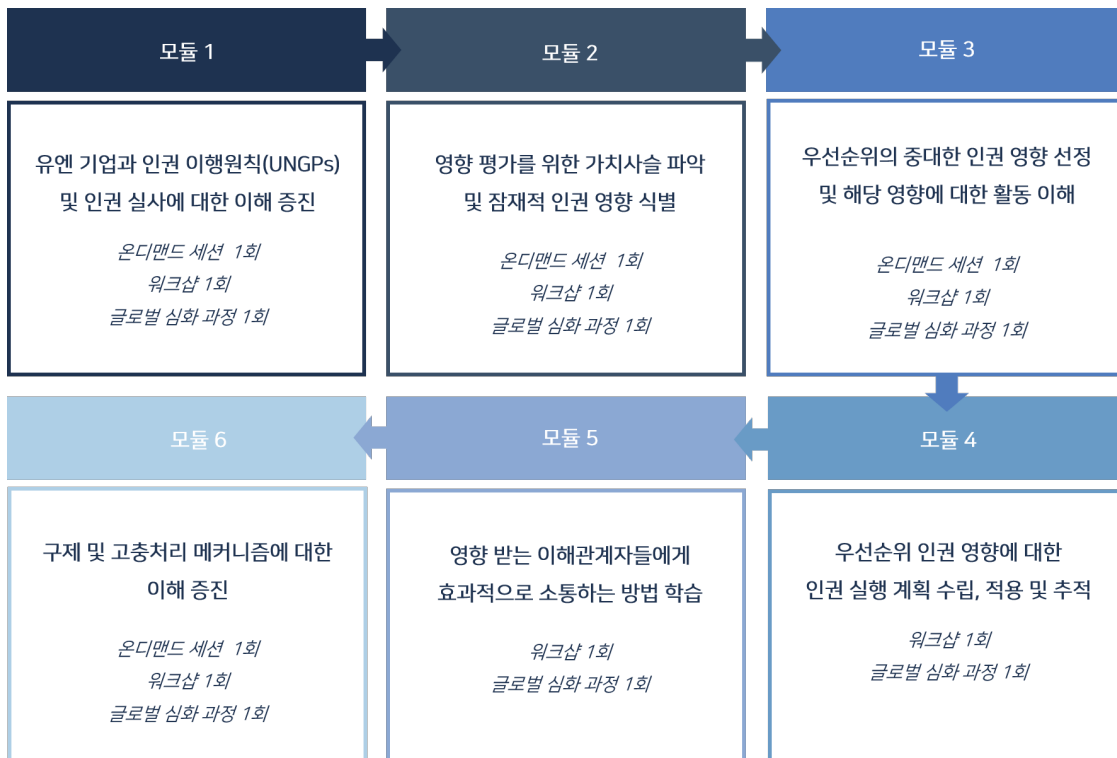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기업을 대표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두 명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는 워크숍에 참석하고, 인권 및 노동권 실사 절차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서 동료들과 협의합니다. 담당자는 지속가능성, 인사, 기업 지배구조 및 리스크, 혹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부서 등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두 명의 담당자와 함께 CEO 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임원 직급인 **“챔피언”**을 지정해야 합니다.

6 개월 동안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여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네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 국내 참여사와 함께 진행되는 여섯 번의 워크숍,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Shift 에서 진행되는 여섯 번의 글로벌 심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약 50 시간, 매주 2 시간 정도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일정

세부 내용	일정(안)
참여사 모집	2022년 10월 - 12월 16일
런칭 세레모니	2022년 11월 29일 (Korea Leaders Summit)
킵오프 세션	2023년 2월 中
모듈 1	2023년 2월
모듈 2	2023년 3월
모듈 3	2023년 4월
모듈 4	2023년 5월
모듈 5	2023년 5월 - 6월
모듈 6	2023년 6월

• 프로그램 내용



[\[참가 신청 바로가기\]](#)

[\[브로슈어 다운받기\]](#)

[\[FAQ 자료 다운받기\]](#)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프로그램 일정 및 모듈별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바랍니다.

*문의: 김두일 연구원(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2022 년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 공유

2022년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 공유

기간: 2022년 4월 29일 - 2022년 10월 17일

장소: 포스코 더샵 갤러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온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들이 UNGC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약 6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ESG 대응 전략 수립 및 기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참여사 간 멘토/멘티 매칭 및 멘토링 세션을 통해 ESG 기획, 평가 대응, 공시 및 보고서 작성 등 ESG 이슈에 대해 학습 및 벤치마킹하는 플랫폼입니다. 매칭된 멘토/멘티 그룹별로 멘토링 세션을 각 2회씩 진행했으며, 전 참여사가 모여 진행한 네트워킹 세션을 끝으로 ESG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SG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멘토 기업/기관 4개사, 멘티 기업/기관 20개사, 총 24 개사가 참여했습니다.

*멘토 기업/기관(가나다 순): DGB금융지주, SK하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자산관리공사

*멘티 기업/기관(가나다 순): 교보증권,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일고무벨트, DRB동일, 롯데홈쇼핑, SK가스, HK이노엔, LG디스플레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CC글라스, 코오롱인더스트리, 클마비엔에이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1. 멘토링 세션

4월~6월에 걸쳐 멘토/멘티 그룹별로 『1차 멘토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사 간 첫 만남과 논의 자리였던 1차 멘토링 세션 때는 각 기업/기관에 대한 소개와 전반적인 ESG 추진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소 ESG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고민을 나누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7월~9월에는 『2차 멘토링 세션』을 진행했으며, 1차 멘토링 세션 때 논의했던 주제들과 멘티 기업/기관들의 관심 이슈 바탕으로 각 멘토/멘티 그룹별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각 멘토/멘티 그룹의 2차 멘토링 세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DGB금융지주: 임직원 참여 유도 및 내재화와 ESG 정보공개 ▲SK하이닉스: ESG 경영 이슈 전반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평가 대응 및 내재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ESG 추진체계 고도화 현황과 윤리 및 청렴 분야 실행과제 현황.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멘토링 세션을 통해 참여사들은 타 기업/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업무에 대해 진솔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GB금융지주 멘토/멘티 그룹



SK하이닉스 멘토/멘티 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멘토/멘티 그룹



한국자산관리공사 멘토/멘티 그룹

3. 네트워킹 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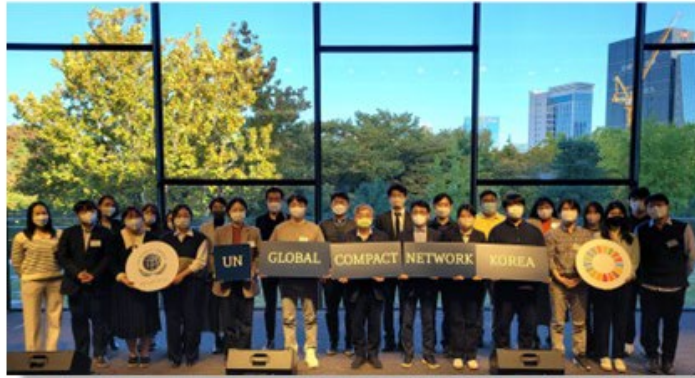
ESG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에 앞서 모든 참여사 실무진들이 모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트워킹 세션』은 포스코건설의 장소 후원으로 더샵 갤러리에서 진행되었으며, 멘토 기업의 ESG 업무 추진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멘토 기업 특별 세션』과 이후 참석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멘토 기업 특별세션에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윤정은 SK하이닉스 TL**과 **서은정 포스코인터내셔널 과장**이 참여했으며, 해당 세션에서 윤정은 TL과 서은정 과장은 경영진 설득 및 외부 협업 방안과 ESG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어 참여사들은 프로그램 참여 및 협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눴고,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더 깊게 논의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ESG 평가 대응 ▲ESG 공시 및 보고서 작성 ▲ESG 이슈별 대응 ▲ESG 공급망 관리 ▲경영진 설득 및 내재화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참여사간 협의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멘토 기업 특별 세션



네트워킹 세션 현장



네트워킹 세션 단체 사진

23년도에는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들의 멘토멘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두일 연구원 (T. 070-4327-5057)

[자세히 보기](#)

4. ERM + UNGC 조찬간담회 결과 공유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금) 8:00-9:30, 웨스틴 조선 서울

참석기업: △금호석유화학, △농협은행, △두산, △DRB 동일, △만도, △미래에셋증권, △Macquarie,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애뉴온캐피탈, △SK 이노베이션, △LG 전자, △LS 일렉트릭, △KB 금융지주, △KKR,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21일 금요일 ERM 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사회 의제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RM 의 글로벌 CEO Tom Reichert 의 한국 방문을 기념하여 개최한 본 조찬 간담회는 기업 경영진들이 마주한 ESG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전에 대한 현황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21 여개 기업의 30 여명이 참석한 본 조찬 간담회는 공동 주최 기관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ERM 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 운영” 이라는 주제로 ERM 의 Nat Vanitchyangkul 아시아 CEO 의 발표가 있었으며, Mark Watson ERM 한국 대표 파트너를 좌장으로 Tom Reichert ERM 글로벌 CEO,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및 신언빈 ERM 파트너의 패널 토론을 통해 기업 경영진들이 마주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의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사>



본 조찬 간담회는 먼저 ERM의 Mark Watson 한국 대표 파트너의 환영사로 시작했습니다. Mark Watson 한국 대표 파트너는 ERM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안전, 보건 및 지속가능성 전문 컨설팅사로 고객들에게 지속가능성 여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유연철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소개하며, UN의 7대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이 시작해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의 10가지 원칙을 토대로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구조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사회적 목표를 광의적으로 지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주도로 설립되어 지속가능성 담론을 한국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 운영>



다음 순서로는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 운영”이라는 주제로 ERM의 Nat Vanitchyangkul 아시아 CEO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도적인 기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Nat Vanitchyangkul 아시아 CEO는 자연기반 솔루션, 공정환 전환, 데이터 기술 등의 변화하는 ESG 현안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략을 세우고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으로 ESG에 접근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탄소집약적 기업에서 해상풍력 기업으로 브랜드를 탈바꿈한 오스테드(Orsted)의 사례를 들며, 지금은 규제의 시대에서 측정의 시대를 넘어 변화의 시대에 다다랐으며, 변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바꿀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 시장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며, ERM은 모든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해왔음을 설명했습니다.

<패널토론: 지속가능성 시대의 리더십>



다음 순서로 “지속가능성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RM의 Mark Watson 한국 대표 파트너가 좌장을 맡았고, Tom Reichert ERM 글로벌 CEO,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신언빈 ERM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ERM의 Tom Reichert 글로벌 CEO는 지속가능성 리더십의 형태와 속도는 나라, 기업, 분야별로 다르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욱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운영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에서 이를 시스템 차원에서 이행하는 노력이 핵심임을 설명했습니다. 기업 리더십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사전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며, 이를 통해 기업에게 어떤 장점을 가져올 지 고민해야 하며, 고객과 소통하며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교체 등 1-2년 내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제조 공정 개선 등 2~5년의 계획이 필요한 목표, 투자, 신기술 개발 등 더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로 하는 목표 등을 구분 하여 시간 프레임에 따라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며 장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취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유연철 UNGC 사무총장은 지속가능성 이슈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은 비교적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이 상향식인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고객사, 팬덤 등 늘어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예시로 언급하며, 앞으로는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객으로 삼고 장기적인 시야로 확장해야 한국 기업의 속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지속가능성 의제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기 수익 추구 및 장기적인 가치 창출의 양면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며 포용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조직들이 더욱 성공적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언빈 ERM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가치사슬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속도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비 한국의 습성, 문화, 및 행동은 아직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의제가 비즈니스와 전략적으로 연결될 경우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린워싱은 업무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서가 일부 목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오너십이 있는 기업들이 긴 호흡으로 ESG 및 탄소 전략을 끌고 나간 경우이며, 기업들은 단기 목표 달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필수적인 단계들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김예영 연구원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2022 년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 공유 (10/20, 11/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2 년 4 분기, 인권 및 ESG 실무그룹 3 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10 월 20 일 인권 실무그룹에는 19 개 회원사가, 11 월 1 일 ESG 실무그룹에는 21 개 회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은 9 월 30 일 개최한 BIS Impact Forum 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인권 실무그룹]

- **일시/장소:** 2022 년 10 월 20 일(목) 14:00-17: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3
- **참석 기업(가나다 순):** 근로복지공단, (주)두산, 법무법인(유) 지평, 서울주택도시공사, CJ 대한통운, HL 만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카카오페이, KCC 글라스, 포스코건설, 한국도로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콜마, 한국환경공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19 개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10 월 20 일(목) 회원사 대상 2022 년 인권 실무그룹 3 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약 20 개 기업/기관의 30 여명이 참석한 본 인권 실무그룹에서는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권영환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나 샌들러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 정책매니저의 「반부패와 인권 아젠다 연결」의 발표 영상을 시청했으며, 실무그룹 참여사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구제 절차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현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인권 실무그룹 3 차 미팅 참여사 실무진을 환영하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인권 실무그룹의 주요 논의사항을 언급하며, “참여 실무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배우고, 각 조직의 경험을 나누는 동료 간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권 실무그룹의 참여사를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권영환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들어있는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 제도’를 소개하며 신고가 발생했을 때 사규 위반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점이 내부고발 시스템과 대비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UNGPs 을 기반으로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의 특성에는 △정당성 △접근성 △예측성 △형평성 △투명성 △권리의 적합성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모니터링) △대화와 참여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관련 평가기준을 소개하였고, 국내 기업의 평가 결과 및 기업 우수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 기업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할 때 참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이나 샌들러(Ina Sandler)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 정책매니저의 「반부패와 인권 아젠다 연결」의 발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먼저 △부패가 인권 침해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는 점 △부패와 인권 침해가 발생 원인을 공유하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향 △부패와 인권 침해 모두 기업의 평판, 운영, 재무 및 법적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들어 반부패와 인권 아젠다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아젠다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닌 두 아젠다 간의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참석 기업 및 기관의 구제 절차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추진 현황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실무진들은 자사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시행 경험 및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발표를 통해 상호 학습 및 인사이트 공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사별 구제 절차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포함하여 △적용 대상, 신고 채널 및 운영 절차 △각 절차별 담당자 역할 △사건 처리의 원칙 △운영 성과 △효과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현안 공유가 있었습니다.

문의: 김두일 연구원 (070-4327-5057, gckorea@globalcompact.kr)

[ESG 실무그룹(민간기업)]

- **일시/장소:** 2022년 11월 1일(화) 14:00-17:00 / 바비엠 2 교육센터
- **참석 기업(가나다 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근로복지공단,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동일고무벨트, (주)두산, 두산에너지빌리티, DRB 동일, 롯데정밀화학, HL 만도, HLB,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카오, KB 국민은행, KB 증권, KCC 글라스, 포스코건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콜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21개)

사)

11 월 1 일(화) 열린 ESG 실무그룹 3 차 미팅에서는 21 개 기업/기관에서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데이터 고도화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LG CNS Entruе 컨설팅 김진우 총괄의 발표를 통해 Twin Transformation의 개념, 사례, 시사점을 살펴보고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주)SK 이진영 PL의 사례 발표를 통해, ESG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그룹 참여사의 발표를 통해, 각 기업 및 기관의 ESG 데이터 관리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LG CNS Entruе 컨설팅 김진우 총괄컨설턴트는 ESG가 연성규범에서 경성규범으로 변화함에 따라,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니레버, BBVA, 하이네켄 등 Twin transformation의 성공 사례와 함께 Diginex, Equilibrium, FactSet 등 Twin transformation을 지원하는 ESG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LG 그룹의 전략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ESG 플랫폼 구축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ESG 데이터를 생성하여 어떻게 적확하게 취합/수집할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수집된 데이터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Twin transformation을 위해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LG 그룹의 로드맵, 계열사 및 섹터 특성 반영 여부,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 여부 등 보다 자세한 궁금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SK의 이진영 PL이 SK 주식회사의 ESG 플랫폼 구축 등 ESG 데이터 관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진영 PL은 DJSI 등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결 기준 ESG 정보 공개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종이 인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복합기업군 및 투자전문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자사의 기준 설정, TF 구성 및 데이터

항목 선정, 콘텐츠 스토리 구성 등 플랫폼 제작의 일련의 경험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차원에서 최초로 ESG 성과를 공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별로 기존에 수집하고 있던 데이터의 종류 및 기준이 달라 통합이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PL은 향후에도 ESG 마이크로사이트의 기능을 확대하고, 점차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 및 고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사 간 ESG 데이터 관리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미팅에 참석한 실무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ESG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글로벌 공시 기준이 점차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감에 따라, 각 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ESG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상호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해당 기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내부 프



로세스, △자체 ESG 정보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사례 및 계획, △ESG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KPI 연계 등 ESG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고, 이에 수반되는 애로사항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3 차 미팅을 끝으로 UNGC 한국협회의 2022 년도 실무그룹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 년에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그룹을 이어 나갈 예정이니, 2023 년도 각 실무그룹 모집 시(1 분기 중)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COP27: 기후변화에 대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제 27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기후변화에 대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COP27
SHARM EL-SHEIKH
EGYPT 2022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itingBusiness



전 세계가 경제, 정치, 그리고 기후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금, 다가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7')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및 정치적 결속력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곤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는 COP27 를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2 년 11 월 9 일부터 18 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주제별 세션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이 기후변화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을 소개합니다. COP27 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기후 달성 목표인 기후 앰비션(ambition)과 기후 행동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특히 G20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기후 행동을 주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고, 과학에 기반한 탈탄소화 계획 수립
- 시장에 기후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 혁신적인 솔루션 확대
- 기후 금융의 발전
- 친환경적이며, 공정한 전환의 지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OP27 를 맞아, 특히 다음의 세 가지 기후 행동에 대해 기업에 확실한 참여를 촉구할 것입니다.

① 배출량 감축 속도의 향상



THE SBTi AT COP27

Discover the SBTi's plans for COP27 and get involved, whether you're on the ground or following from abroad.

FIND OUT MORE

지구 온도 상승을 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금세기 중반에는 글로벌 넷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차원 기후 약속과 감축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경로로 인도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후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반 감축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하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하고, 1.5°C 경로에 따라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넷제로를 향한 책임성과 강력한 추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②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CFO COALITION FOR THE SDGs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거듭 촉구한 바와 같이, "적응과 완화는 동등한 투입과 긴급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COP26의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구상과 같이, 2025년까지 적응 기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기후 기금의 50%를 기후 적응에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협상 여지가 없는 영역입니다. 정부가 본 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민간 부문 또한 사업 전개 과정과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에서 적응 노력 및 자원 조달을 증가시킴으로써 기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최고재무책임자(CFO) 연합(CFO Coalition for the SDGs)은 기업 금융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수천 개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넷제로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보장

녹색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부문은 특히 저·중소득 국가에서 근로자와 지역사회 및 국토의 보호 및 풍부한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에 투자함으로써 넷제로로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전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모든 사람을 토론 테이블에 포함시키는 것에서 시작될 것 입니다. 기업은 또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며,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 영향과 환경 리스크를 유념함으로써 그러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OP27 이벤트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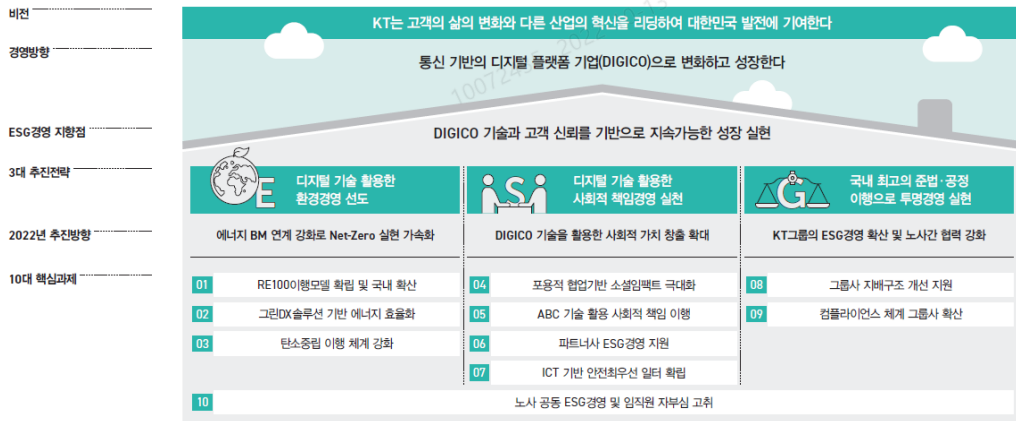
1. 기업 소개

KT는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기업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는 DIGICO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표 ESG 기업으로서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KT는 통신기업을 넘어 종합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DIGICO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ABC(AI·BigData·Cloud) 기술을 기반으로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B2B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 B2B DX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B2B 고객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화, 디지털화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통신에 대한 고객의 새로운 요구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KT는 확장성, 안정성, 유연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기업고객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DX 파트너 KT로 자리 잡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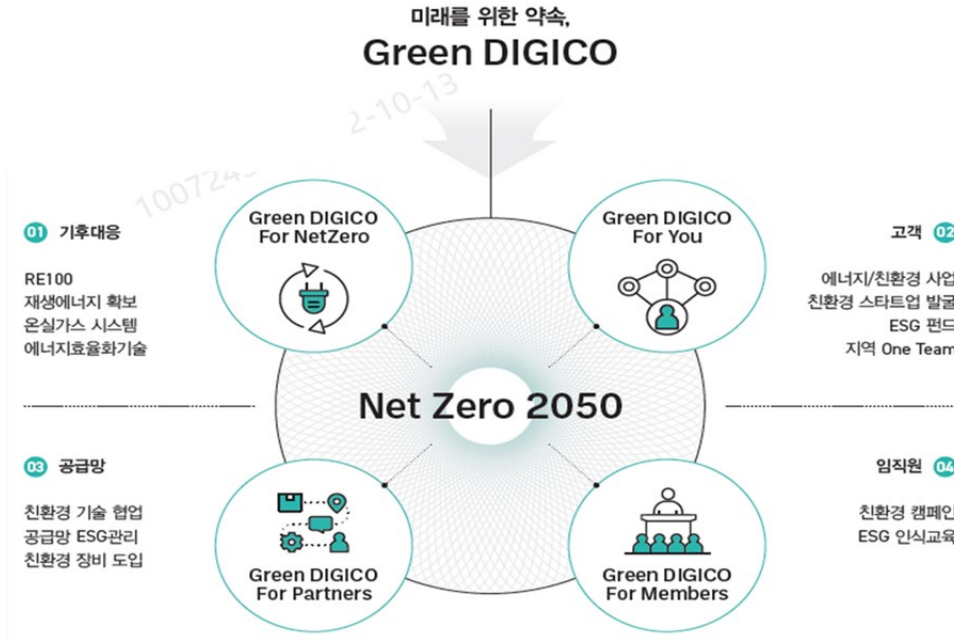
KT는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에서 3대 추진전략과 2021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환경/사회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회 문제의 해결,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투명한 경영과 국내 최고의 준법을 이행하는 그룹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사례

사례 1. 必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KT는 2050년 Net Zero 달성을 위해 ABC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KT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국가 차원의 Net Zero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 감축, 2050년까지 Net Zero를 목표로 매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위원회의 환경분과에서 과제를 도출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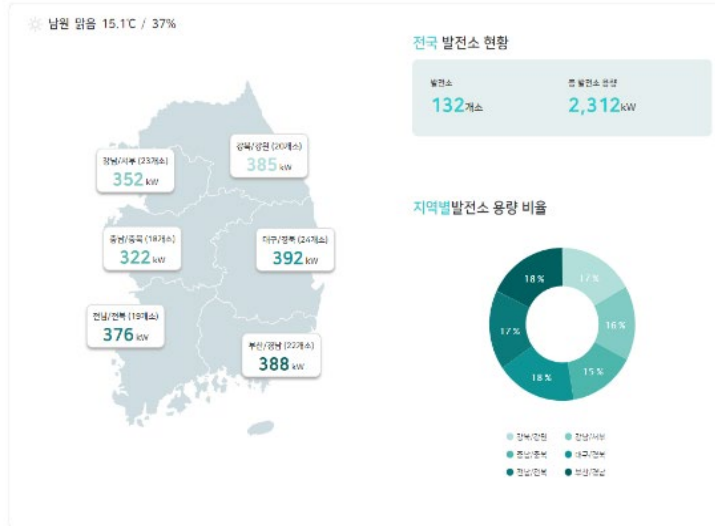
사례 2.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강화

KT는 2018년 전국 사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 사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 배출량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소를 감지하고 감축 아이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Scope 1, 2 배출량에 대한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2013년부터 관리 범위를 Scope 3까지 확대하였으며, Scope 1, 2, 3의 경우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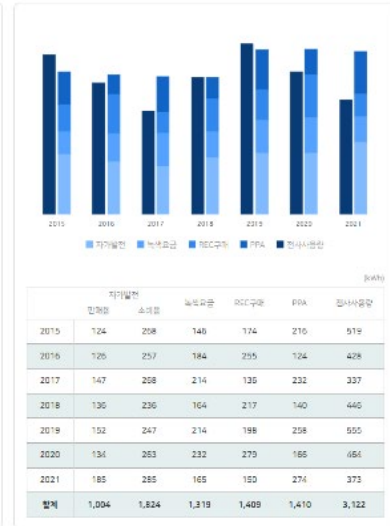
2021년에는 Scope 1, 2 배출량 감축 100% 관리를 위해 전국 모든 통신장비(전진배치 사업장, 기지국, 중계기 등), 업무용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였으며, RE100 이행 관리 기능도 개발했습니다. 2022년에는 주요 그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RE100 현황

태양광 발전소 현황



RE100 이행 이력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

사례 3. 진정성 있고 꾸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KT는 DIGICO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이 ICT 역량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15년째 추진하고 있는 <IT 서포터즈 프로보노 활동>, 2001년부터 시작되어 22년째 운영중인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KT 사랑의 봉사단>, 통신업의 본질인 커뮤니케이션과 연계한 <소리찾기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그간 많은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과 재활 활동을 지원해 온 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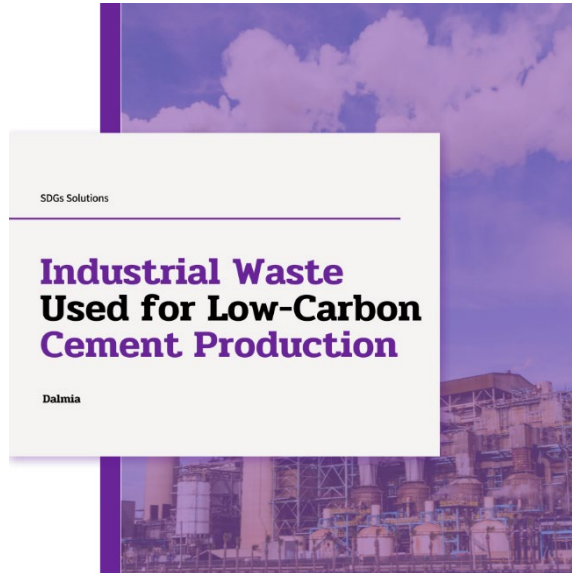
지속가능개발목표	글로벌 이니셔티브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SDGs 솔루션] 저탄소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 폐기물(Dalmia)



달미아(Dalmia)는 산업 부산물 및 고철과 같은 산업 폐기물을 강도가 높고 환경 영향이 적은 시멘트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달미아(Dalmia)에서는 시멘트 재료의 일부를 산업 폐기물로 대체하여 천연 자원을 절약하고 산업 공정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혼합 시멘트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비산회(플라이애쉬, fly ash), 그리고 철강 산업에서의 폐기물 등 각종 산업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석회석 채굴 축소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실제 시멘트 제조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평균 900kg/t 인데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평균 526kg/t 으로 절감됩니다.

달미아(Dalmia)는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에 참여 중이며 내부 탄소 가격제를 활용하여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net negative emissions)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목표 하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동시에 대기 중 탄소를 분리시키고자 자사 시멘트 제품에 사용되는 폐기물 함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은 달미아(Dalmia)가 중공업 업계에서 최초이며, 현재 5 배 이상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한 데 더 나아가 2030년까지 10 배 더 워터 포지티브한 시멘트 기업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달미아(Dalmia)의 1.5°C 약속]

달미아(Dalmia)는 2018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시멘트 생산자로 꼽혔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의 RE100 및 EP100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으며, 최근 1.5°C 시나리오에 맞춰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낭비되는 자원을 활용하면 석회암 수요와 건설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SDGs 13 기후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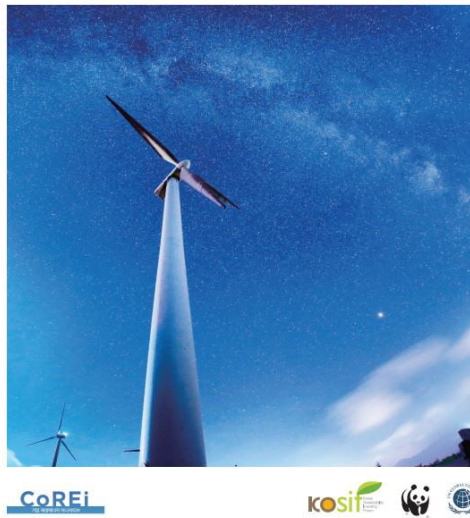
시멘트 생산은 극도로 탄소 집약적인 공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산업 활동에서 나온 폐기물을 활용하면 시멘트 생산의 탄소 발자국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CoREi,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발간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11 월 2 일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힘.
- 가이드라인은 총 이론편과 실무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편은 국내 전력시장구조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배경과 현황, 한국형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의 조달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경제성 분석 △실무편은 실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조달제도별 사용자 매뉴얼 및 필요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은 CoREi 공동운영기관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매거진한경

2. KoDATA,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박차”



- 한국평가데이터(이하 KoDATA)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 UNGC)에 가입했다고 10 월 31 일 밝힘.
- KoDATA 의 UNGC 가입은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첫 가입 사례로, 앞서 KoDATA 는 지난해 '데이터로 만드는 신용과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ESG 경영 비전을 세우고 △기후변화 영향 저감 △사회적 가치 창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라는 3 가지 전략방향 하에 각 부서별로 해당 과제를 부여함.
- 이호동 KoDATA 대표는 “ESG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은 타 회사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기 이전에, 우리의 ESG 경영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가입 소감을 밝힘.

대한금융신문

3. “사회적 책임 준수”...수협은행,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수협은행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투명·윤리 경영 준수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0 월 26 일 발표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수협은행의 이니셔티브 참여를 환영하며 ESG 기반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동참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힘써달라"고 전함
-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UNGC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함

한국경제

4. 유한양행,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사회적 책임 실천



- 유한양행,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밝힘.
- 회원사는 UNGC 핵심 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보고서(COP)를 공개해야 함.
- 유한양행은 2021년 12월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22년 5월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음.
-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뉴스 1

5. 에코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ESG 자문사 에코나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표적인 이니셔티브인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했다고 밝힘.
- 에코나인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WEPs(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과 지지를 선언한 바 있음.
- 서욱 대표, “에코나인은 지속가능경영 자문사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에코나인의 UNGC 가입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을 전파하는데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힘.

한국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0 월 20 일부터 11 월 9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 곳입니다.

- (주)신세계
- 씨앤씨인터넷네셔널
- 한국평가데이터
- 이엔에이스위트호텔

2. COP/COE 제출회원

10 월 20 일부터 11 월 9 일까지 1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IBK 기업은행
- 천안시설관리공단
- 현대건설기계
- 강릉관광개발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한국체육산업개발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서부발전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인천시설공단
- LX 세미콘
- 티비에이치글로벌
- 한국교통안전공단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미반도체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개정 COP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 회원

2023년도 개정 COP 정책 도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초,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는 오는 2023년부터 영리 회원사들이 모두 응답해야 하는 COP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한국협회에서는 총 13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가 제출한 COP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고무벨트](#)
- [DRB 동일](#)
- [DGB 금융지주](#)
- [만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애규온캐피탈](#)
- [HK 이노엔](#)
- [유한킴벌리](#)
- [콜마비엔에이치](#)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
- [효성첨단소재](#)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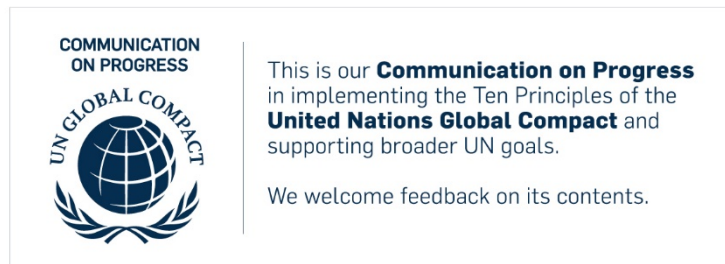
*비영리 회원사는 내년도 동일하게 기존 COE 정책대로 COE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 Home: www.unglobalcompact.kr